

제1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9. 28)

시 정 질 문 현 황

질문의원	질 문 의 제	출석 공무원	페이지
김강수	○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 장	1
김성근	○ 청학동소재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	도시과장	6
김명동	○ 민선 제4기 비전과 재정운영기조에 대하여	시 장	8
김진기	○ 경로사상 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 할인혜택 관련시책 추진	사회복지과장	12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강 수	서 명	
제 목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담당실과	시 장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열(熱)과 성(誠)을 다해 임해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채용생 시장님, 김복천 부시장님, 실·과·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에서 해양 수산가공 산업을 육성키 위한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젓갈류 등 수산물 가공제품은 오랫동안 우리시를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으며, 또한 관련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지역의 주요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태 등의 수산물 가공업에 쓰이고 있는 각종 어종의 고갈로 홍어가 계속되면서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게 되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의 치열한 판매경쟁 속에서 우리지역의 많은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는 이제 존립 그 자체를 염려해야만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의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계획대로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입주 대상업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지리(장소)적인 여건, 기존 관련시설 운영업체의 참가(공장이전)의사, 향후 생산품 판매전망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1993년 조성한 대포농공단지의 분양·입주·공장가동 까지의 기간, 공장이전 계획에 따른 관련업체 의견 등을 조사·연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대포농공단지 조성후 용지분양·업체입주·공장가동 등에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농공단지 입주 총 23개업체 중 약 반정도는 내수경기 침체 및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농공단지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두번째는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설치예정인 소각장 시설 인근에 인위적으로 식품생산 단지 유치를 위하여 대포제2농공단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청결과 위생적인 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가공식품의 생산과 판매전략에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번째는 집행부의 젓갈 가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현재 젓갈 가공업체에서는

대포제2농공단지로의 이전 계획추진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수산물 가공공장에 이미 생산설비, 냉동창고 등 관련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포제2농공단지로의 이전에 따른 상당한 비용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전한다고 해도 원가 절감을 위해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 설비시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만약 용지 분양저조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대로 본공사에는 지방채 20억원, 시비 11억원 등 총 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채무액은 전국 자치단체중 상위 7위로 총 833억 3,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당성과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또 다시 20억원의 채무를 지는 사업 추진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대단위 수산물 가공단지에 외항선을 통한 가공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속초항의 보세수조(水槽) 등 항만관련 시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정책 오류·수정은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의 손해를 볼뿐이지만, 행정의 정책 오류·수정은 그 손실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좀더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에서 본인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첫째, 젓갈 가공업체측에서는 명란·창란 등 원재료를 매년 3 ~ 4월에 1년분 소요량을 구매함으로써 상당한 자금부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란의 경우 매년 3 ~ 4월에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 시기를 일실(逸失)하기 때문에 톤당 구입원가가 1천만원 정도로, 젓갈 공장 1개업체에서 평균 약 50톤 정도를 일시에 구매하여야 하는데 명란 한 품목에만 재료구입비가 한번에 약 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창란·오징어 등 다른 원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일부 업체는 명란외 다른 품목은 현재 도매업체의 출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구입에 대한 부담으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젓갈류 가공업체들은 공장이전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위치한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현재의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생적인 생산기반 시설지원, 운전자금 지원확대, 공동 냉동창고 신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집행부에서는 속초항의 항만기능 증대를 통하여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냉동 수산물을 가공하고자 대포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수산 가공단지를 입주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항은 외항선 기항을 위한 냉동창고시설 및 급유를 담당하는 유류선 등 관련 설비의 미비(未備)로, 과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산 냉동수산물 수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속초항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포제2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매립장 시설의 간접영향권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쓰레기 매립장·소각로에서 예상되는 악취나 해충 발생시 입주업체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성 근	서 명	
제 목	청학동소재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	담당실과	도시과장

지난 7월 민선 제4기 출범이후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만을 염두
하시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3월 시작된 청초호유원지 -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사업은
지금까지 총사업비 72억원중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구간
798m중 약 400m를 개설하는 등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제4대 의회에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모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장기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 대상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모 군부대 이전을 위한 시(市)와의 협의가 계속하여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면서 이 도로개설사업이 과연 계획년도인
2009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물론 속초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
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이상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 군부대가 이전될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유치를 통한 도심공동화 해소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청초호변을 따라 도심 남·북간을 연결하게 되어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부터 이후 본 구간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과 함께 군당국과 해당 군부대 이전협의 진행상황과 속초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명 동	서 명	
제 목	민선 제4기 비전과 재정운영기조에 대하여	담당실과	시 장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정의 제1목표로 세우고 불철주야 열(熱)과 성(誠)을 다하는 민선 제4기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제5대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집행부서로 부터 업무보고 청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현안사항 보고, 조례안심의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의정활동의 초기단계 입니다만 몇 가지 정책추진에 대한 비전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운영 기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시에도 실·과·소장께 질의 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에 따라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복지행정에 치중할 것인지, 시설복지에 치중할 것인지, 경제개발에 치중할 것인지, 관광진흥에 치중할 것인지 등 앞으로 민선 제4기 재정운영			

기조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총예산액 2,041억 7,160만원 중 복지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예산 및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얼마이며 각각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시는 제1차 산업은 물론 제조업 공장시설이 매우 미약한 도시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반영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향후 우리시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떠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번째, 대단위 토목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대책입니다. 주지하시느 바와 같이 60~80년대 초까지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자동차·전자·철강 등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민선 제4기 집행부에서 속초경제살리기를 위한 주요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산정하고 있는 소요예산액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얼마전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833억 3,500만원으로 전국 자치단체중 상위 7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채무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채 등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총 채무내역과 그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UR, DDA, FTA협정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농어촌 진흥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의 경우 애기 우는 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농촌총각이 장가가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면세유가(油價) 상승 및 계속되는 홍어로 근해 어업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업인에 대한 소득증진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번째, 문화예술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설악문화제와 설악 눈꽃축제 등 지역축제는 거의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금자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최근 개최된 평창군 메밀축제를 참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행사에 참가인원은 약 60만명에 이르고 방문객 대부분이 외지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악문화제는 어떠합니까 ! 이 축제는 외지관광객보다는 대부분고령층의 시민들로 먼지 날리는 황막한 운동장에서 노래방 기기에 의존하여 가무를 즐기는 것이 행사의 주이며, 또한 설악 눈꽃축제는 얼음조각 몇 개 전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우리시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곱번째 매년 갈수기만 되면 식수원의 고갈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수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속초소방서 인근 지역의 경우 도심(都心)이면서도 적은 양(量)의 집중호우에도 그 일대가 침수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기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중장기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진기	서명	
제 목	경로사상 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 할인혜택 관련시책 추진	담당실과	사회복지과장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집행부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급격한 핵가족화 진행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노인층 등 약 9천여명의 우리시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어르신께서 목욕장, 이발소, 개인의원, 식당 등 의료·서비스·일반상가 업체 이용시 일정액 할인혜택을 위한 관련시책 추진 검토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격동의 근대사를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가꾸어 주셨던 세대로서, 이제 그 보은의 의미로도 적으나마 시민 모두가 참가·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우리의 전통양식인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에 대한 노령화 속도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미 지난 2000년도에 노화가 시작되는 나라로 규정되는 기준선인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7.1%를 기록하였으며,

오는 20년후인 2026년 한국의 노인인구 수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6년 8월 현재 인구수 86,255명중 65세 인구가 8,706명으로 10%를 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도 5,344명으로 6.1%에 달하고 있는 등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연금, 경로당 난방비지원,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수노인수당 등 노인 복지업무와 아울러 전시민이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각급 민간단체와 함께 인근부대에 근무하는 군(軍)장병의 외출·외박시 숙박업소·요식업소 등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군(軍)신뢰 쌓기 운동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또한 으뜸(BEST) 속초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용있고 품격높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어버이를 존경·우대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어르신들께 의료·서비스 업체 등 상가 이용시 할인혜택을 드리는 우대업소 지정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행정력과 예산액의 소요없이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련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